

# 코로나 신규 확진 6만2078명...위중증 108일만 '최다'

### 월요일 발표시점 기준 18주만에 최다치

### 국내발생 6만1682명, 해외유입 396명

연휴 이틀째인 지난 14일 전국에서 6만207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발표일인 월요일 기준으로는 18주만에 최다치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21명으로 108일만에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만2078명 늘어 누적 2141만8036명이 됐다.

이는 발표 시점인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11일(9만912명) 이후 18주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1주 전인 지난 8일 5만5262명의 1.12배, 2주 전인 1일 4만4654명의 1.39배다.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1만6087명, 서울 8246명, 인천 2982명 등 수도권이 다 합해 2만7315명으로 44.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3만4742명(56.0%)이 나왔다. 경남 3935명, 경북 3584명, 대구 3038명, 부산 2929명, 충남 2843명, 전남 2782명, 광주 2714명, 전북 2453명, 강원 2369명, 대전 2263명, 충북 2242명, 울산 1595명, 제주 1473명, 세종 522명, 검역 21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6만1682명, 해외유입은 396명이 각각 집계됐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에서 2만7182명

(44.1%), 비수도권에서 3만4500명(55.9%)이 각각 발생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이 1만2916명(20.9%),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1만2894명(20.9%)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검역 단계에서 21명, 지역사회에서 375명이 각각 확진됐다. 내국인은 277명, 외국인은 119명이다. 유입 추정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07명, 유럽 46명, 아메리카 30명, 오세아니아 8명, 아프리카 3명, 중국 2명 등이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417명이다. 전남(592명)보다 175명 줄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512명)보다 9명 늘어난 521명이다. 지난 4월29일(526명) 이후 108일 만에 최다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57명(87.7%)이다. 80세 이상 256명(49.1%), 70대 122명(23.4%), 60대 79명(15.2%)이다.

60세 미만 중에서는 50대 25명(4.8%), 40대

19명(3.7%), 30대 13명(2.5%), 20대와 10대 각 2명, 0~9세 영·유아 3명이 위중증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9일부터 1주간 364명→402명→418명→453명→469명→512명→521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사망자(치명률)도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0%로 직전일(42.5%)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병상 1790개 가운데 985개가 비어 있다. 수도권 가동률은 45.6%, 비수도권은 43.7% 수준이다.

중증증 병상과 중증증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각각 65.3%, 47.3%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가 주로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17.2%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0명으로

직전일(57명)보다 7명 줄었다.

신규 사망자 중 남성이 29명(58.0%), 여성이 21명(42.0%)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48명(96.0%)이며, 80세 이상이 전체 절반인 25명이다. 70대 15명(30.0%), 60대 8명(16.0%), 50대와 40대 각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5673명,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2%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71만3282명이다. 전날 7만1734명(수도권 3만4973명, 비수도권 3만6761명)이 신규로 재택치료를 들어갔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에 173곳이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733곳,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926곳(비대면 진료 가능기관 7723곳)이 있다.

최이슬기자



'삼계탕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말복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다.

## 카약 타러 바다간다던 50대, 이틀째 연락두절...해경수색

신안으로 해상 레저 활동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 남성이 이틀째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58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해수욕장으로 간다던 5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

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카약을 타러 간다며 자택을 나선 뒤 이틀째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민간 어선, 경비함정과 헬기, 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해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A씨의 최근 행적 등으로 미뤄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전방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 낮술 먹고 운전, 중앙선 넘어 사고낸 40대

### 차량 2대 잇따라 들이받아 9명 경상

광양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5)씨를 긴급체 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13분 광양시 옥룡면의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자가용

을 운전하다 건너편 주행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점심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광양=기동채본부

## 광복절 심야 광주 도심 누빈 오토바이 폭주족

8·15 광복절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몰고 위험 난폭 운전 등을 일삼는 폭주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거칠게 몰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로 A(20)씨·B(1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30분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심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몰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광복절을 맞아 광주 남서구와 광산구 일대를 넘나들며 난폭·위협 운전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



으로 파악됐다.

광산경찰은 '폭주족 오토바이 20여 대가 떼를 지어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일제 단속을 벌여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신고 위반, 인도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 1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